



나이지리아 무조건 깬다



17일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B조 2번째경기 한국-아르헨티나 경기에서 한국의 이청용이 추격골을 성공한 뒤 주먹을 불끈 쥐자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에 당했다... 90분 내내 한국 골문 위협

태극전사들 협력수비 펼쳤지만 아쉬운 패배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에 당했다. 한국은 17일 밤(한국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010 남아공월드컵 B조 2차전을 치른 가운데 메시가 맹활약을 펼친 아르헨티나의 4-1 대승으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이날 경기서 아르헨티나는 테베스(맨시티)와 이구아인(레알 마드리드)이 공격수로 나선 가운데 메시가 중앙에서 팀 공격을 지원했다. 또한 앙헬 디 마리아와 막시 로드리게스(리버풀)는 측면에 위치해 팀 공격을 이끌었다.

메시는 한국전에서도 세계 최고 선수다운 플레이를 펼쳤다. 메시는 한국선수 2~3명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여유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메시는 전반 43분에는 페널티지역 정면서 이정수(가시마 엘프러스)와 김정우(광주)를 차례로 제친 후 한국 수비진 사이에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도 슈팅까지 마무리하며 한국 골문을 위협했다.

특히 전반 동안 한국이 허용한 두차례 실점 장면 모두 메시의 발끝에서부터 볼 전개가 이뤄졌다. 메시는 전반 15분 한국 오른쪽 진영에서 얻은 프리킥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로 박주영의 자책골을 유도했다. 또한 25분 이구아인의 헤딩골 역시 메시-로드리게스-부르디소-이구아인 순서로 볼이 연결됐다.

후반 31분 터진 이구아인의 썩기골 장면에선 메시의 진가가 유감없이 드러났다. 특유의 드리블로 페널티지역 오른쪽을 돌파한 메시가 왼발로 때린 슈팅을 골키퍼 정성룡이 막아내자 메시는 재차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메시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골문 앞으로 흐르자 이구아인이 왼발로 가볍게 차넣어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메시의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를 한국 수비진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반 35분 터진 이구아인의 득점 장면 역시 메시의 활약이 돋보였다. 메시는 페널티지역 정면서 한국 수비수 4명

한국 - 아르헨티나 경기기록본서

득점 선수: 박주영(광주) 1:4, 이청용(광주) 2:1, 이기훈(수원) 3:1, 이청용(광주) 4:1

한국(4-2-3-1)	11:00개시	4-1:0
43:550(847)	점점비율(%)	57(전)70(후33)
13	슈팅	22
2	오류수	11
2	프리킥	6
20	코리안	19
0	패널티킥	0
19	피울	19
2(이청용, 이기훈)	골고	3(이기훈, 박주영, 이청용)
0	퇴장	0

사이에 둘러싸이자 감각적인 로빙 패스를 통해 아구에로에게 볼을 연결했다. 아구에로는 메시의 패스를 이어받은 후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결국 이구아인이 헤딩골로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들은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메시는 1대1로 막을 수는 없다. 협력 수비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김정우는 전반전 동안 중원에서 메시의 돌파를 3~4차례 저지하기도 했지만 한국 수비진은 페널티지역 근처서 메시의 움직임에 봉쇄하는데 있어 고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월드컵 데뷔골 이청용 “나이지리아 해볼 만하다”

“16강으로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청용(22·광주)이 월드컵 본선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지만, 예상 밖의 대패에 빛이 바랜 아쉬운 경기였다.

이청용은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0-2로 끌려가던 전반 45분 만회골을 넣었다.

골키퍼 정성룡이 길게 차준 공을 박주영이 머리로 떨어뜨려 놓자 아르헨티나 수비수 마르틴 데미첼리스(바이에른 뮌헨)가 공을 잡았지만, 이것이 약간 길게 컨트롤됐다.

반쯤은 잊고 있던 이청용은 재빨리 달려들어 만회골을 터뜨렸다. 박주영의 자책골과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의 득점이 이어지며 두 골 차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꿔놓는 한 방안이었다. 공격 점유율이 한때 8-2가

지 밀릴 만큼 수세에 몰려 있던 한국은 이청용의 재치있는 득점으로 후반에는 한층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후반에도 이청용은 13분쯤 염기훈(수원)에게 절묘한 패스를 내줘 2-2 동점을 만들 기회를 만들었으나 ‘왼발의 달인’ 염기훈의 왼발슛이 빗나가 동점골을 어시스트 할 기회를 놓쳤다. 끝내 기대했던 동점골 대신 이후 이과인에게 두 골이 나 더 내줘 무릎을 꿇었지만, 이청용의 이날 득점은 의미가 있었다. 1988년에 태어난 ‘젊은’ 이청용은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큰 무대 신고식을 치러 더 밝은 미래를 기약했다.

이청용은 “오늘 패했지만 16강으로 가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여차피 마지막 경기로 결정이 된다. 나이지리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면서 “빨리 잊고 내일을 대비하겠다. 한국도 웃고 우리 선수들도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16강을 기원합니다!

FILA THANKS FESTIVAL

30 ~ 20 OFF

기간: 6월 18일(금) - 7월 11일(일) 일부품목제외

FILA FILA GOLF FILA FILA filativa